

신당 경선 주말 슈퍼 4연전 결과와 전망

거침없는 鄭, '대세론' 굳어지나

광주·전남 이어 부산·경남도...8곳중 7곳 석권 4일부터 모바일 투표 3각 경쟁 구도 형성 관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의 최대 변수였었던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의 '슈퍼 4연전'에서 별다른 이변없이 정동영 후보가 승리, 추후 경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잠적 후 경선 복귀라는 조 강수를 내세운 손학규 후보는 반전에 실패, 초반 4연전에서 한 풀 꺾인 대세론을 되살리는데 실패했으며 이해찬 후보의 '친노 후보 단일화' 카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풍'(鄭風), 대세론으로 가나=정 후보는 '초반 4연전', '슈퍼 4연전' 등 경선이 진행됐던 8개 지역 가운데 강원을 제외하고 전역에서 1위를 차지, 절반 가량 남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아가고 있다.

정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이 후보에 다소 열세가 예상됐던 부산·경남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영호남 모두에서 동시에 승리한 것이다.

정 후보측은 민주·개혁세력의 본산이며 지난 2002년 '노풍'(盧風·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지역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일에는 정 후보의 텃밭인 전북지역 경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풍(鄭風)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캠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반전 실패한 손 후보=초반 4연전에서 정 후보에 1위를 내준 이후 잠적에 이은 경선 복귀라는 극약 처방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

하려했던 손 후보는 '슈퍼 4연전'에서도 반전에 실패하면서 대세론의 굳어짐이 더욱 심각해졌다.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는 2위를 차지, 그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부산·경남지역 경선에서 3위로 처지면서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슈퍼 4연전'에서 반전에 실패, 추후 경선에서도 역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손 후보 캠프에서는 경선의 최대 변수인 모바일 투표와 강세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지역 경선에서 대역

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기에 빠진 이 후보=친노 후보 단일화와 신의론을 기반으로 대역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던 이 후보도 '슈퍼 4연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3위에 그친데 이어 1위가 예상됐던 부산·경남지역 경선에서도 2위에 머물러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1·2위와의 격차도 크게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반전의 계기 마련에 실패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친노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풍에 그치고 있는 데다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점에서 경선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민경선 향후 전망=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켰던 광주·전남지역

에서 22%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데 이어 부산·경남에서도 14%대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의 국민경선 흥행 전망은 암울하다.

특히, 뚜렷한 반전 구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선의 긴장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조직·동원선거 과문과 후보간의 원색적 비방은 흥행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투표 결과에 대통합 민주신당 국민경선의 흥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동안 4차례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 손 후보나 이 후보가 약진, 정 후보와의 치열한 3각 경쟁 구도가 전개된다면 경선은 국민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2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경선결과 정동영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鄭 "오늘부터 이명박 대세론 공략" 孫 "백척간두...뚜벅뚜벅 나가겠다"

■광주·전남경선 이모저모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경선 결과 발표된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발표 시간인 오후 7시 이전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과 신당 관계자, 보도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오후 6시40분께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입장, 단상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했다. 후보들에게는 긴장의 20여분. 그러나 이 시간동안 행사장 곳곳은 일부 지역의 개표 소식에 전 해지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동구, 남구, 광산구 등에서 정 후보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면, 전남 영광에서는 손 후보가 700여표 차로 앞섰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각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후보들의 표정도 희비가 엇갈렸다.

손 후보는 두 눈을 감은 채 공식 발표를 기다렸고 이 후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반면 정 후보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긴급 뉴스를 확인하는 듯 밝은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봤다.

개표 발표 후 정 후보는 "오늘부터 이명박 대세론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포효했다.

초반 4연전에서 이어 이날도 다시 패배한 손 후보는 "오늘의 결과를 더 열심히 하라는 체적으로 알고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자세로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위로 내려앉은 이 후보는 "오늘 한표한표를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기대만큼 받지 못했지만 더 분발해서 내일부터 대추격의 드라마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는 이후 기자들의 간이 인터뷰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조사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광주·전남 경선이 실시된 지난달 29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관공서로 보이는 동일한 국번의 전화에서 모 후보를 지지해달라 전화가 걸려 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전화 발신자인 시의회 사무실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시의회 모 의원 사무실에는 해당 의원을 포함 7명이 있었으며 선

관위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4시간여 동안 버티다가 오후 7시25분께 문을 열고 조사에 응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당부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영광군 투표소에서는 터치스크린 시연기 화면에 가상 후보가 아닌 실제 후보에 기표되는 것처럼 오작동을 일으켜 참관인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盧대통령 명의 도용 선거인단 등록

대학생 3명 검거 조사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명의도용에 관여한 장모(19·대학생) 군 등 남녀 대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장 군 등이 지난 8월23일경

서울 송인동 모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해 노 대통령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통합신당의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캐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장 군의 동내친구 박모(19) 군, 박 군의 대학친구 이모(18·여) 양 등 셋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민심 아직 냉랭 투표율 22%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풍(노무현 후보 압도적 지지)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20% 초반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정치적 의미가 반감됐다.

범여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저조한 투표율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데다 이전 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선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광주·전남지역 국민경

선 결과, 평균 투표율은 22.64%(광주 20.67%, 전남 24.25%)를 기록했다.

이같은 투표율은 첫 주말 4연전(제주·울산·강원·충북) 당시 투표율(19.8%)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며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켰던 열기에 비교한다면 거의 냉랭한 수준이다.

특히, 30%를 넘는 투표율을 기대하며 국민경선 흥행의 발판으로 삼으려했던 신당 지도부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외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신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솔직히 맥이 빠진다"며 "추후 경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준의 투표율도 장담할 수 없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후보가 범여권 주자가 된다해도 한나라당 이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된 데다 신당 경선이

정권 창출의 비전보다는 조직·동원선거 논란 등 후보 간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선에서의 '광주·전남 민심의 선택'이 갖는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경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좀 더 두고보자'는 유보적 성향을 보였다라는 지적이다.

일단 정동영 후보를 1위로 선택했지만 손 후보나 이 후보에게도 의미있는 지지를 보내면서 내다댈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결집은 오는 11월께로 전망되는 범여권 후보단일화 성사 이후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RODEM 로템갤러리 - 직수입 엔탁가구 -

특가 SALE

당신의 마음을
진중 높이
드립니다.

로템갤러리

피넛기탁상품행사



●진공상품 30%~최고 50%








문의전화: 010-29-059-1022